

# 오스카 · 극장 · 독립영화 접수했다...여배우 전성시대

### 남성 중심 장르물 일색 충무로서 지난해 부터 변화



조여정



강말금

“여배우들이 출연할 작품이 없어요.” 몇해 전만 해도 여배우들의 인터뷰 때마다 나오고는 했던 푸념이다. 한동안 남성 중심의 장르물 일색이었던 충무로지만, 지난해 부터 슬슬 시작된 변화의 조짐이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 ◇ 해외에서도 알아보는 여배우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의 영예를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여덟명 남녀 배우의 앙상블이 돋보였던 작품이다. 송강호 최우식부터 조여정 박소담까지 ‘기생충’의 배우들은 누구하나 빠진다고 평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각자의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등 여배우들의 연기는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연기치 못한 반전을 만드는 기정부 문광역의 이정은과 백지미와 교양미를 동시에 갖춘 부작집 사모님 연교 역의 조여정은 이들이 연기한 독특하고 매력있는 캐릭터로 인

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 사이에서도 많이 화자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19일 진행된 ‘기생충’의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LA 길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봤는데 그에게 극장에서 ‘기생충’을 봤다면 20분을 이야기 했는데 10여분을 조여정의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 연기와 캐릭터가 인상적이어서 하루 내내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우리나라 배우들의 아카데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낙관적인 예상을 낳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기생충’ 배우들이 남녀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데 실패해서 아쉬움을 준 바 있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제36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내면서 또 한 번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왔다.

‘미나리’의 경우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 뿐 아니라 한예리와 윤여정 등 우리나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윤여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어워드와치(Awards

Watch)가 뽑은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도전할 유력한 배우로 꼽히기도 했다.

### ◇ 코미디 · 범죄...장르물도 접수

영화제용 영화, 혹은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의 작품에서만 여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개봉하는 여러 상업영화들에서도 ‘우면파워’를 느낄 수 있다.

‘원톱 배우’로 우뚝 선 라미란은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로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직한 후보’는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 분)이 선거를 앞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동명 브라질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성 캐릭터였으나 한국판에 와서는 바뀌게 됐다. 연출자 장유정 감독이 라미란의 캐스팅을 위해 주인공을 여성 국회의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라미란은 감독의 기대만큼 코미디 영화의 재미를 울곧이 견인한다.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연기는 코미디 장르 속에서 100% 강점으로 작용했다. 김무열, 윤경호 등 남배우들과 보여주는 앙상블 역시 훌륭하다.

라미란이 코미디를 정복했다면 전도연은 범죄 장르 영화에서 강렬한 연기로 영화 전체의 중심을 잡았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연희 역을 맡은 전도연은 무려 영화의 중반에 등장할에도 불구하고, 본색을 숨긴 욕망 가득한



이정은 라미란 전도연 전종서(왼쪽부터)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화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역시 여러 명의 배우들이 비슷한 분량을 가져가는 멀티캐스팅 영화이자 연희 역을 맡은 전도연과 그런 연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미란 역의 신현빈의 캐릭터가 더욱 돋보였다.

그밖에 3월 개봉을 앞둔 ‘홀’ 역시 여성 캐릭터들이 중심에 섰스릴러 영화다. 낯은 전화를 통해 연결된 현재의 서연(박신혜 분)과 20년 전 과거의 영숙(전종서 분)이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이 영화는 주인공 박신혜와 전종서 뿐 아니라 김성령, 이엘이 비중있는 배역을 맡아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3월 5일 개봉하는 영화 ‘결백’ 역시 배종옥과 신혜선 두 여배우

가 각각 누명을 쓴 엄마와 엄마의 누명을 풀기 위해 애쓰는 변호사 딸 역할을 맡아 모녀 호흡을 보여준다.

### ◇ 독립영화 페르소나들

독립 영화에서도 여배우들의 활약은 돋보인다. 지난해 ‘별새’(감독 김보라)와 ‘메기’(감독 이옥섭)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영화 모두 여성 감독들의 작품으로 개성있는 시각과 그에 걸맞은 탄탄한 연출력이 돋보였던 작품이다. 이들의 작품에서도 박지후와 김재벽(‘별새’), 이주영, 문소리(‘메기’) 등 여배우들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존재감을 보여줬고,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페르소나 역할을 톡톡히 했다.

3월 개봉하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영화 프로듀서 출신 김초

희 감독의 첫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갑자기 일이 끊겨버린 상황에 처한 40대 여성의 성장기를 그린 이 영화는 감독의 페르소나처럼 느껴지는 배우 강말금의 밝고 현실적인 연기로 한층 신선한 작품이었다.

재기발랄한 영화 ‘밤치기’로 주목받았던 정가영 감독의 신작 ‘하트’도 주목할만한 독립영화다. 감독 자신이 주연과 연출, 각본을 동시에 맡은 이 영화는 마음에 따라, 사랑 따로 움직이는 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재기발랄한 발상이 돋보이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정가영은 여배우라기 보다는 감독이자 배우로 영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예술가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뉴스1

## 씨야 이보람, 완전체 인증샷 “못한거 다 하며 살자...사랑해”

그들 씨야의 이보람이 완전체 인증샷을 공개하며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보람은 22일 자신의 SNS에 “그저 사랑한다는 말 밖에 저희 셋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라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먹먹하기만 하다”고 남겼다.

이어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신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또 저희의 이유인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밝혔다.

이보람은 “아무 생각이 안난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좀 더 마음이 진정되면 감사 인사 다시 올리겠다”며 우리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면서 살자! 일단 너무나 사랑해”라며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다.

이보람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씨야 멤버들이 케이크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모습. ‘슈가맨3’ 무대 의상을 입고 소원을 비는 멤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세 사람은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슈가맨’에서 해체 후 약 10년만에 등장해 무대를 꾸미며 많은 이들을 감동받았다.

## “영재인 것 같다” 유재석, 유르페우스 ‘부캐’도 성공 예감

### MBC ‘놀면뭐하니?’ 서 하프 연주 도전

유재석이 이번엔 하프에 도전한다. 트로트 가수인 리전 세프에 이어 이번 하프 연주자 ‘유르페우스’ 부캐릭터에도 많은 이목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방송된 MBC ‘놀면뭐하니?’에는 유재석의 새로운 부캐릭터 ‘유르페우스’가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유재석은 갑작스러운 하프 연주 소식에 연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김태호PD의 ‘남시’에 넘어간 유재석은 하프 앞에 앉게 됐고 예술

의전당 무대까지 예고되는 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재석은 이날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하프 선생으로부터 “재능이 있고 영재인 것 같다”는 칭찬을 듣자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유재석이 유르페우스 부캐릭터를 만난 사연은 이렇다. 이날 유재석은 잠실에 위치한 초고층 호텔로 초대받았다.

이어 다양한 세프들이 등장해 원어로 음식의 맛 및 음식 소개를 이어갔고 유벤저스와 유재석은



유르페우스로 탄생하다!

“위”라며 불어로 ‘알겠다’고 답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뒤이어 한 세프가 등장해 불어로 “하프 연주를 해보겠다”고 물었고, 유재석은 별 생각 없이 “위”라고 답했다.

제작진의 미끼를 문 유재석은 레스토랑에 갑자기 등장한 하프에 당황했고 유벤저스는 유재석을 응원해 웃음을 안겼다.

## 거침없는 ‘이태원 클라쓰’ 12.6%...JTBC 드라마 역대 2위

### 박새로이 소신 있는 리더십 · 조이서 성장 공감 선사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 소신의 리더십으로 단밤을 지켰다. 시청률 역시 14%를 돌파, 동시간대 1위를 지키며 열풍을 이어갔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극본 조광진/연출 김성윤) 8회 시청률은 전국 12.6%, 수도권 14.0%(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연일 자체 최고 경신과 함께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SKY 캐슬’(23.77%)에 이어 역대 JTBC 드라마 시청률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날 장대희(유재명 분) 회장의 반격에 맞서는 박새로이(박서준 분)와 조이서(김다미 분)의 갈등이 그려졌다. 장회장은 단밤포차의 건물을 사들여 그를 무릎 꿇리

려 했지만 박새로이는 화수한 투자금 10억 원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며 제 소신과 직원들을 지켜나갔다.

박새로이는 장회장을 만나기 위해 장가그룹으로 향했다. 장회장은 건물 매입도 모자라 단밤포차가 다시 문을 여는 족족 그곳을 사들이겠다고 횡포를 부렸다. 그것은 장회장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 앞에 무릎 꿇을 것을 강요했다. “무릎 한 번 꿇으면 과거는 깨끗이 잊고, 무엇보다 빼앗지 않을 길세”라는 제안에 박새로이는 “고작 퇴짜, 고작 건물? 당신은 내게 어떤 것도 빼앗지 못했어”라고 도발할 뿐 흔들리지 않았다. 박새로이에게 있어 ‘강함’은 바로 사람, 믿고 의지하

는 직원들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단밤포차를 지키기로 다짐했다.

박새로이와 장가의 악연을 알게 된 조이서는 오수(권나라 분)에 이어 장근수(김동희 분)에게까지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새로이 인생을 망친 주범이 자신의 집안이라는 것을 짐작한 장근수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조이서를 통해 모든 과거사(史)를 알게 된 장근수는 눈물 어린 사과를 건넸고, 박새로이와 단밤포차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새로이의 소신 있는 리더십과 그를 통해 변화하는 조이서의 성장에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했다. 장회장과 대비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내세우며 직원들을 지켜내는 박새로이의 리더십은 ‘새로이 없이’의 가장 큰 원동력. 조폭 출신 최승권(류경수 분), 트랜스젠더 마흔이(이주영 분), 그리고 악연의 라이벌 장회장의 아들 장근수까지 ‘내 사람’을 향한 박새로이의 마음은 조금 특별하다. 특히 장가와의 악연을 알게 된 장근수에게 “너희 형, 내 아버지와 나의 문제지 너는 그냥 너니까”라는 짧은 말속에 담긴 포용과 애정은 불굴한 감동을 더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방송된다.